



홍성군
HONGSEONG-GUN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안현경

거버넌스란?

1.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혹은 지역사회 협력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절양식)
2.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도입
(정부의 실패에 대응한 공공관리로 이해)

(이관률, 충남연구원 2014)

준비과정

- 희망마을, 권역단위마을, 흥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농촌체험관광협의회
: 협력관계 동의 → 모임('12.12) → **(준)거버넌스 발족(' 13.3)** → 정기모임



마을, 기관 정보공유 및 거버넌스 필요성 공감



거버넌스 준비위원회 모임(3월, 4월)



홍성통 운영방법

1. **합의**에 기초하고 운영주체의 파트너십의 크기나 참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참여방법: (민간) 참여 역할에 기초, 기존 운영위 회원의 추천

(행정) 해당 분야에 참여의사 물어보고 진행

- 간사의 역할: 자료를 모으고 회의록 정리. 안건을 독려하고 협의. 공유

2. 별도의 조직이 아닌 기존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촉진활동 수행

3. 관련 주체들이 연계협력할 사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역할 분담 및 논의

- “ 할 사람이 있으면 한다!”

4. 민간분야는 **지역협력네트워크**, 행정분야는 **농정발전기획단**이 코디네이터 담당

5. 정보공유 방법: 행정(메모보고를 통해 회의자료와 회의록, 회의결과 공유)

민간(페이스북페이지, 인터넷카페, 분야별 회의에서 공유)

6. 월례회의 운영: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2시 (장소는 순환하여 진행)

홍성통

홍성군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 **통**으로 한데 모으고
- **통**하게 잇고
- 지역 전문가인 **통**을 키워낸다는 뜻



"통"

1. 어떤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의미
2. 막힘없이 들고나다는 뜻

홍성 + "통" = 홍성통

1. 홍성 농어촌 발전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와 행정실과가 모여 이야기하고 협업하는 지역 거버넌스 이름
2. 홍성에 정통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찾고 잇고 키우는 곳

홍성통 식구들은

홍성군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닿
더 많은 홍성통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성통 이름 정하기(13년 8월 회의)

논의사항	[준]거버넌스 8월 정기모임
1. 거버넌스 명칭 정하기	
□ 제안 명칭: 지역협력네트워크 ‘홍성 통(通)’	
[참고] 기존 제안된 명칭안	
명칭안	비고
1. 홍성군 미래창조경제협의회	조OO
2. 홍성 다모아센터	OO과
3. 홍성군 민관정책협력회의 (홍성군 민관업무공유 월간회의)	이OO
4. 민관협력상생발전협의회	정OO
5. 민관 지역 가꾸기 협력센터	전OO
6. 지역활성화센터	OO회
7. 홍성꼬뚜	권OO
8. 지역협력발전소 홍성통 지역협력네트워크 홍성통	안OO, 전OO

-----안전 및 논의-----

1) 거버넌스 명칭

(이OO) 거버넌스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거 같고..

(전OO) 오늘정도면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손OO) 몇 달 된 거니까 빨리 이야기해서 결정해야지..

(이OO) 제안하신 의견이 최선인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조OO) 길잖아요. 구지 네트워크를 넣지 말고 지역협력 ‘홍성 통’ 하면 어떨지? 통보다 축이 나올 것 같은 게.. 움직이는 거니까 축!

(이OO) 축은 어감이..

(손OO) 의미나 지역 이름은 좋은데, 거센소리가 나서. 이름이나 네임으로는 거센소리가 들으면 안 좋아..홍성통은 빼면 어떨지..

(김OO)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OO) 00발전소 하는 작명법은 일본에서 많이..

(이OO) 저희들끼리 협의만 되면 이름이 정해지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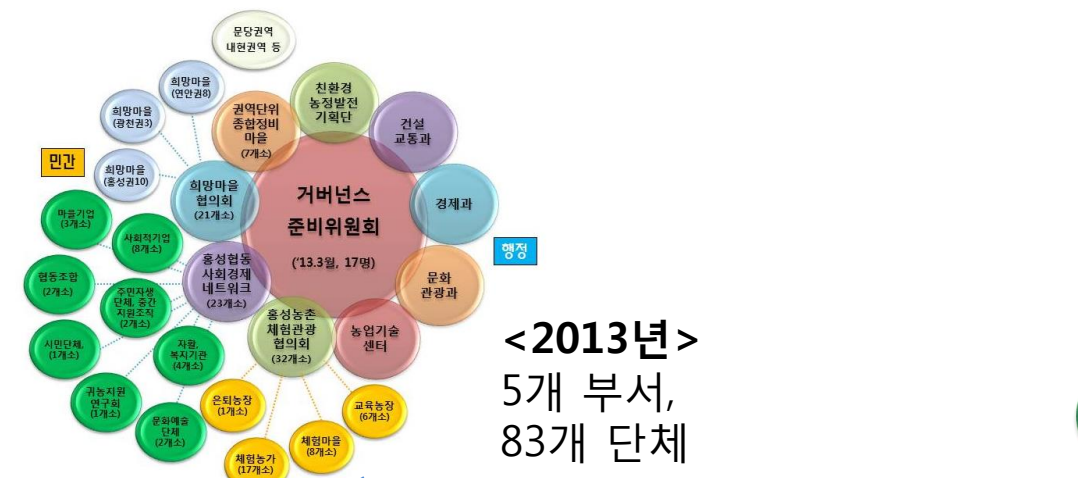
(정OO) 이게 농정기획단에서 몇날며칠 고민 한 결과니까.. 한번

(이OO) 홍성 통속에 빠져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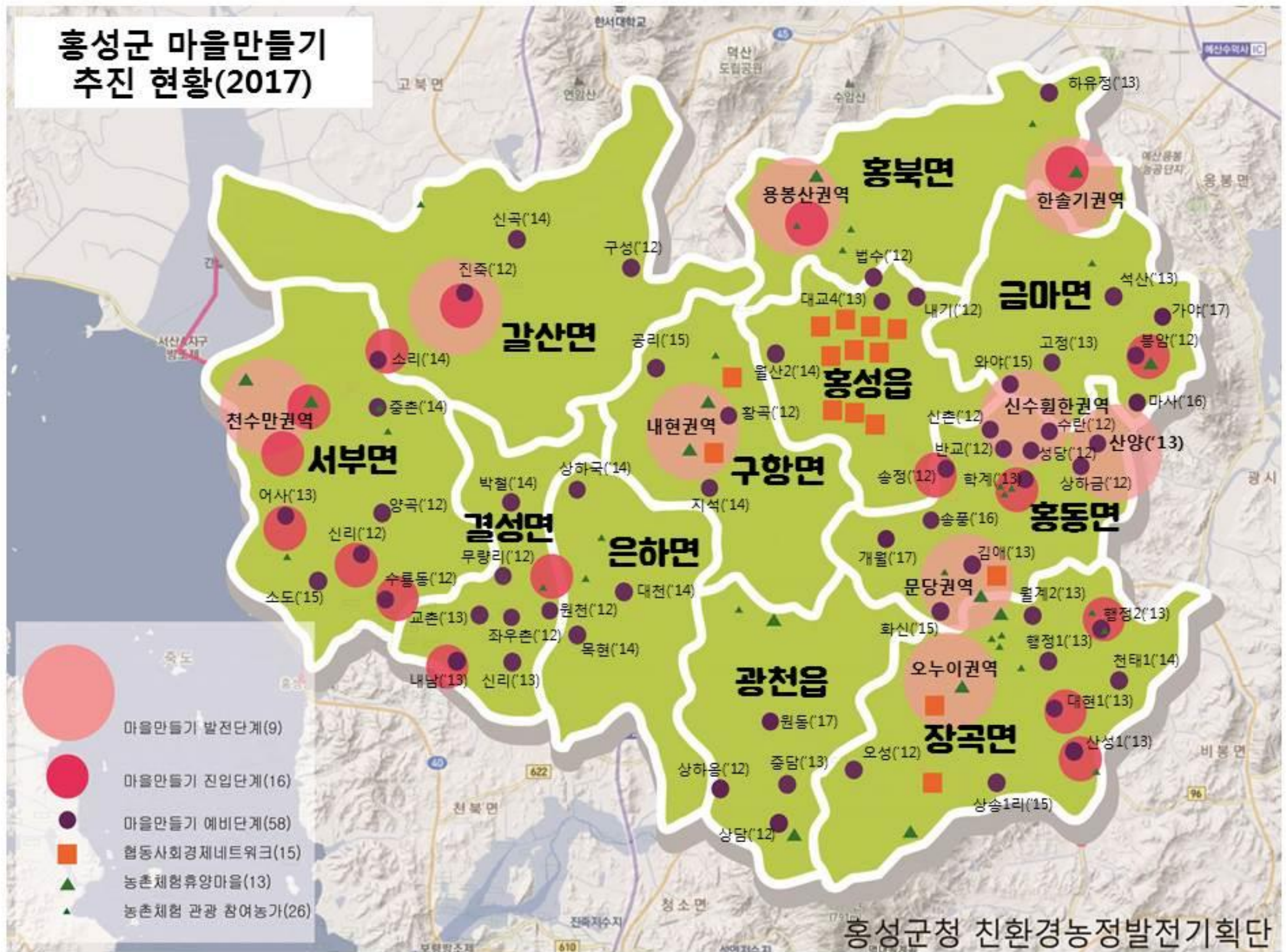
(이OO)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지역협력네트워크 홍성통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참여주체



홍성군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2017)



무엇이 나아졌나? 한계는?

참여자, 홍성통이 되다?

참여가 습관이 돼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ex) 홍성통 폐북 14년 88명 > 17년 1,7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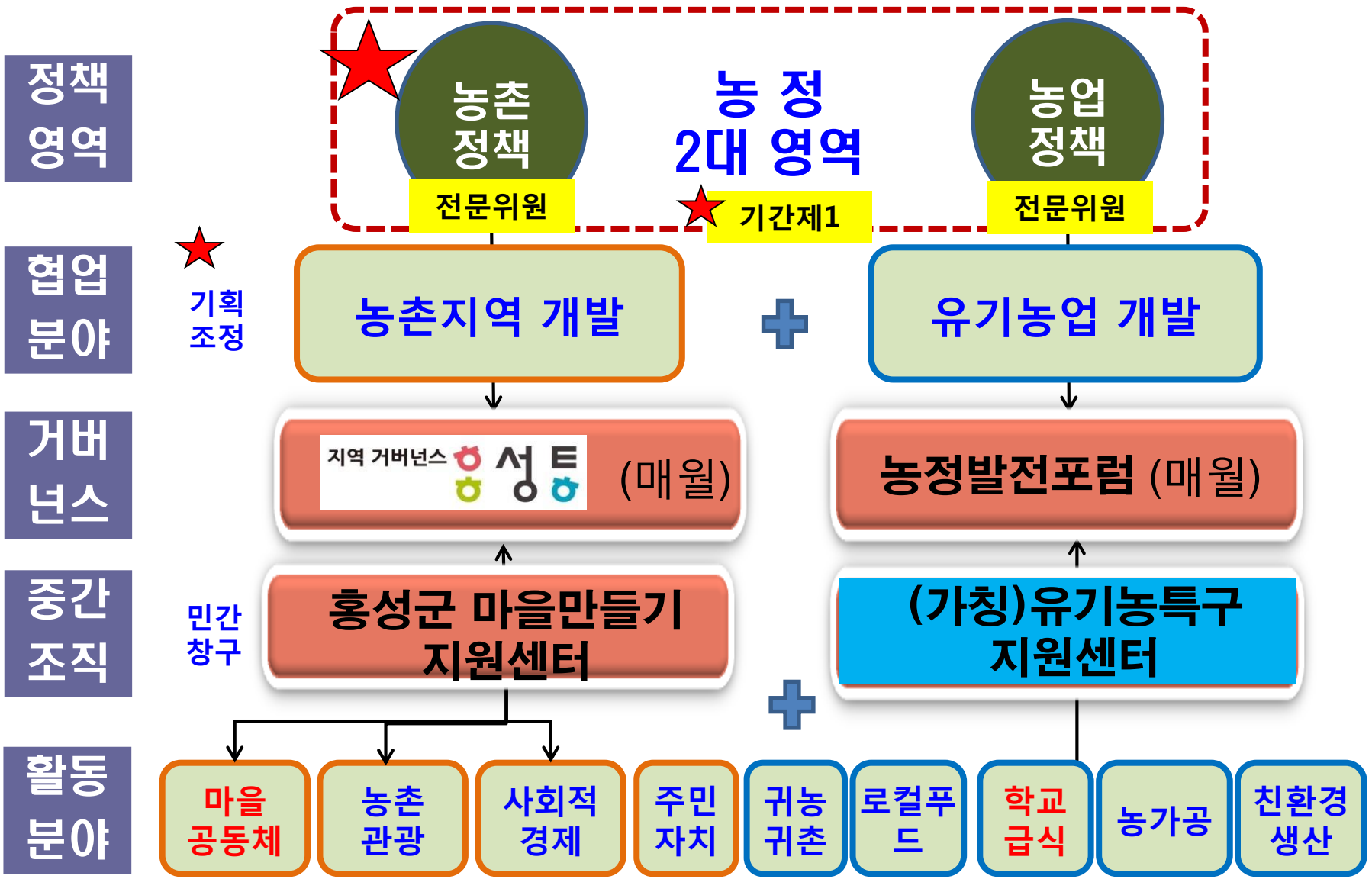
공유 협력 토론의 연습 ex) 공동 선진지 견학, 일정조정, 공동참여

역할분담, 자원배분 등 구체적인 문제

절차를 통한 정책조정과 행정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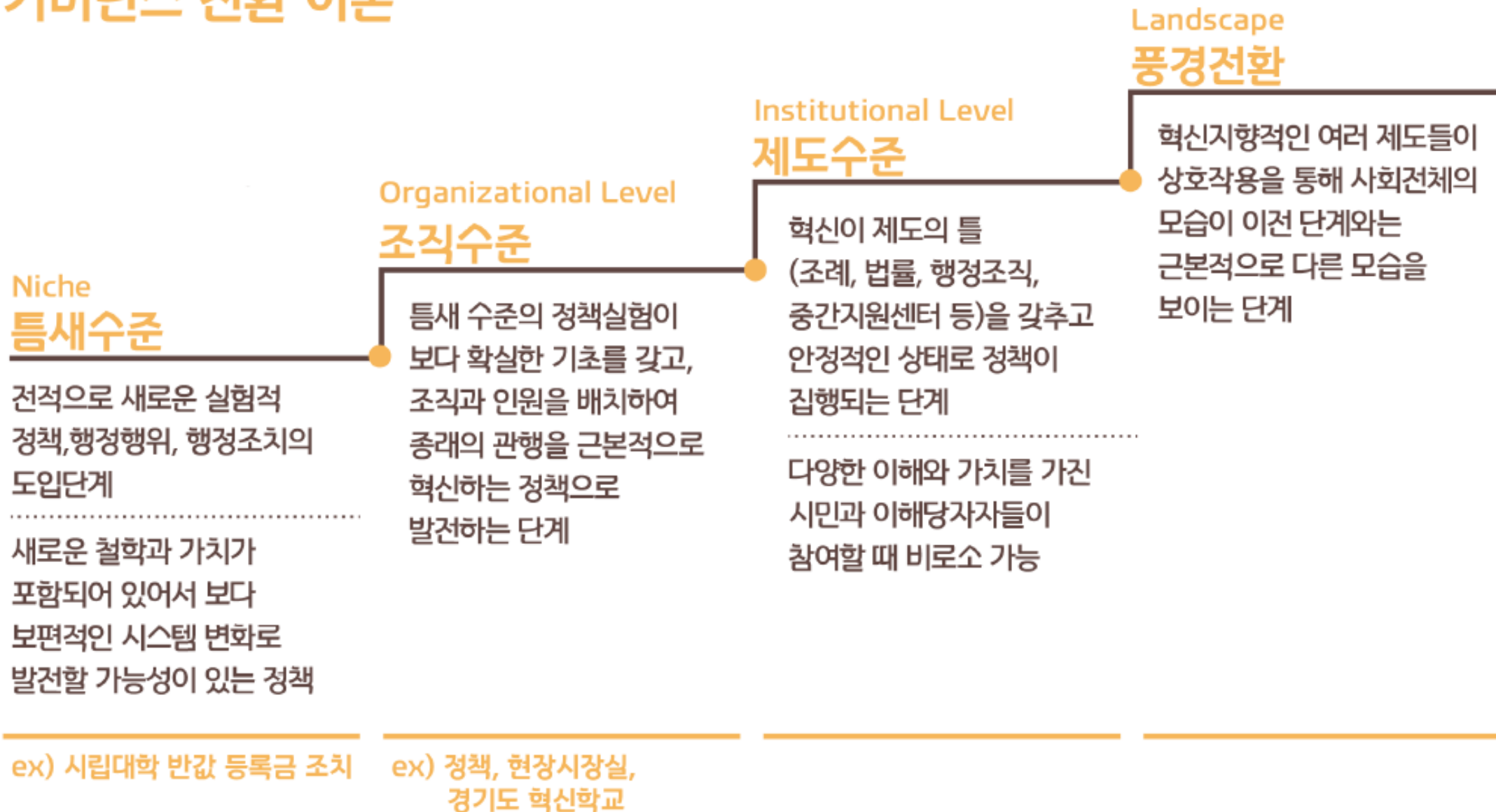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

향후 과제 - 농업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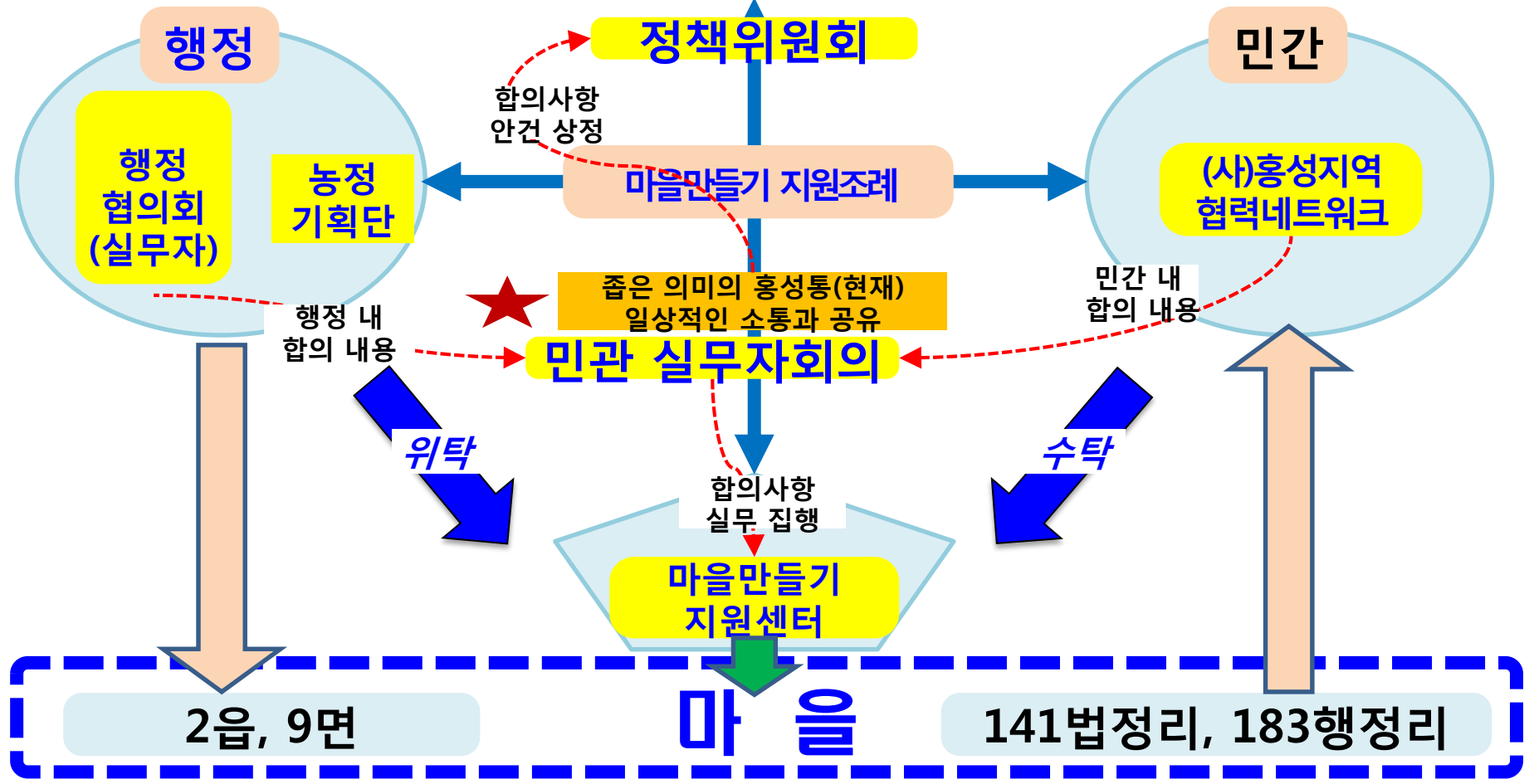
향후과제 - 제도화

거버넌스 전환 이론



향후과제 - 홍성통의 방향

홍성통의 향후(홍성통+): 자율에서 조례에 근거를 둔 조직, 의무적 활동 결합
→ 민관 실무자회의(현재) + 행정협의회(신설) + 지역협력네트워크(신설) + 정책위원회(신설) + 지원센터(신설)
의원, 공무원(실과소장), 전문가, 민간 대표



<구자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2015>

